

#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77호 | 발행인 : 백선희 | 발행일 : 2019년 11월 15일 |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 도농복합시에서 시작하는, 육아친화 농어촌 만들기

### I. 농어촌 영유아 인구 변화에 따른 육아지원 우선 농어촌-“도농복합시”

농어촌의 인구는 급감하고 있으나 도농복합시는 영유아인구가 오히려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는 농어촌이므로, 이 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농어촌 육아지원 방안 논의가 필요함.

- 2000년대 이후 농어촌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나 귀농, 귀촌, 다문화가정 증가 등의 영향으로 농어촌 영유아 인구감소율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음. 이러한 전향적 경향을 반영하여 농어촌 영유아는 육아정책의 주요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 ▶ 2018년 기준 귀농·귀촌 인구는 534,673명(출처: 국가통계포털)으로 50만을 넘어섰고 특히 40세 미만 세대가 50% 이상을 차지함.
  - ▶ 2005년부터 2016년까지 0~4세 영유아 인구 변화율을 보면 전체 기간(2005년~2016년) 대비 후반 6년간의 감소율이 낮아졌음. 최근의 둔화 경향이 뚜렷함.
- 농어촌 지역 중 도시와 농촌의 성격이 공존해 있는 ‘도농복합시’는 영유아 양육 가구의 증가율이 더욱 뚜렷함. 그럼에도 육아환경은 도시 수준에 못 미쳐 개선 요구가 높음.
  - ▶ 도농복합시는 대도시 근교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직장 통근이 가능하고 비교적 낮은 주거·생활비로 인해 젊은 세대 유입이 높아 영유아 인구가 증가되고 있음.

〈표 1〉 도농복합시 및 읍면지역, 도시지역 간 영유아 인구 증감률 비교

구분	2005	2010	2016	증감률 (2005-2016)	증감률 (2010-2016)
농어촌(읍·면)지역	414,343	381,532	368,592	88.96	96.61
도농복합시	726,874	726,672	747,861	<b>102.89</b>	<b>102.92</b>
도시 지역	1,968,007	1,837,552	1,824,011	92.68	99.26

출처: 김은설·김지현·이재희·안석·김혜진(2018). 도농복합지역 육아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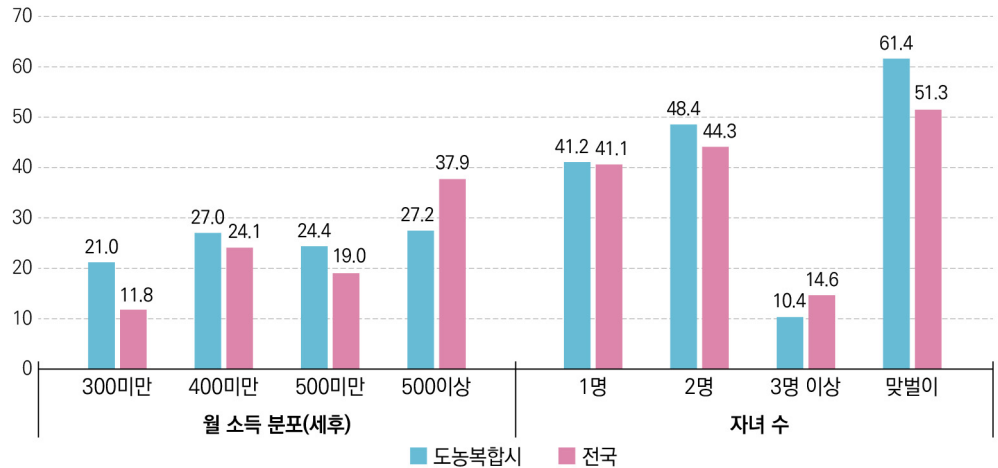
- ▶ 도농복합시의 생활 구조는 도시와 유사하나 육아지원 인프라 특성은 오히려 농촌에 가까운 형태로, 도시에 비해 영유아 천명당 어린이집 수와 단위 km<sup>2</sup>당 초등학교 수, 의료기관 종사자 수가 부족함. 이는 육아환경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음.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지원으로 수행한 『도농복합지역 육아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김은설·김지현·이재희·안석·김혜진, 2018)』에 기초함.

## II. 도농복합시 영유아 육아 실태와 요구

도농복합시 영유아 가구는 맞벌이 비율이 높고 다자녀가 과반수 이상인 특징을 보이나,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이용 만족도가 비교적 낮고 농어촌의 육아 환경 소외에 따른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음.

- 도농복합시 영유아 양육 가구는 전국 평균 대비 맞벌이 비율이 높으며 자녀 수가 많은 경향이 있으나 소득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 도농복합시의 영유아 가구는 맞벌이 비율이 61.4%(전국 51.3%)에 이르나 가구소득은 월 500만원 이상이 27.2%로 전국 영유아 가구 37.9%에 비해 소득상위층이 적음. 그러나 2명 이상 자녀를 둔 비율은 58.8%로 과반수 이상이며 전국 58.9%와 비슷한 수준임.



[그림 1] 도농복합시 영유아 가구의 특징

자료: 도농복합시 -김은설 외(2018). 도농복합지역 육아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국 - 이정원 외(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 영유아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돌봄 등 양육 지원에 대한 수요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도농복합시 영유아 가구의 유치원, 어린이집 등 기관 이용 실태(500 표본 조사)를 보면, 전국 통계 대비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비율이 높으나 상대적으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접근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의존율은 전국 대비 낮은 편임.
  - ▶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률이 61.7%, 유치원 이용률은 37.9%임. 그러나 '17년 기준 전국 통계를 보면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41.8%, 유치원은 49.4%로 차이가 있음<sup>1)</sup>.
  - ▶ 전국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14.2%이고 도농복합시의 경우는 17.8%로, 상대적으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비중이 적음<sup>2)</sup>.
  - ▶ 영유아 부모의 보육에 대한 서비스 다양화, 질 제고 등의 요구가 높은 편임.
- 도농복합시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구의 서비스 만족도는 전국 표집 가구의 해당 만족도보다 낮은 경향이 있음.
  - ▶ 5점 척도에서 평균 점수를 보면 도농복합시의 경우는 3.78점이나 전국 평균은 4.04점으로, 도농복합시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1) 보건복지부(2017). 어린이집·유치원 포함 시설 이용률. 내부자료; 이정원 외(2018). 전계서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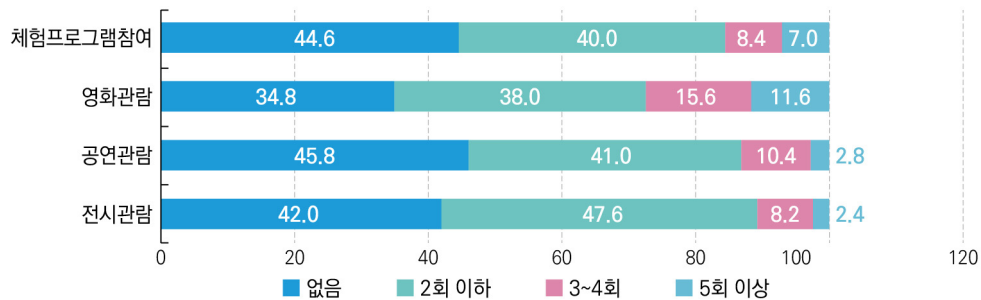
2) 전국 국공립이용률은 보건복지부(2018). 보육통계에 근거함. 도농복합시 이용률은 김은설 외(2018). 전계서에 의함.

〈표 2〉 도농복합시와 전국 기준 어린이집·유치원 만족도 비교

구분	도농복합시	전국	편차
교직원(원장, 교사)	3.91	4.19	-0.28
주변환경	3.74	3.97	-0.23
시설설비(교재교구)	3.81	4.04	-0.23
비용	3.62	3.88	-0.26
건강관리	3.69	4.02	-0.33
급간식관리	3.79	4.02	-0.23
안전관리	3.82	4.10	-0.28
교육내용	3.85	4.11	-0.26
생활지도	3.83	4.12	-0.29
부모참여 및 교육	3.72	3.92	-0.36
전체 평균	3.78	4.04	-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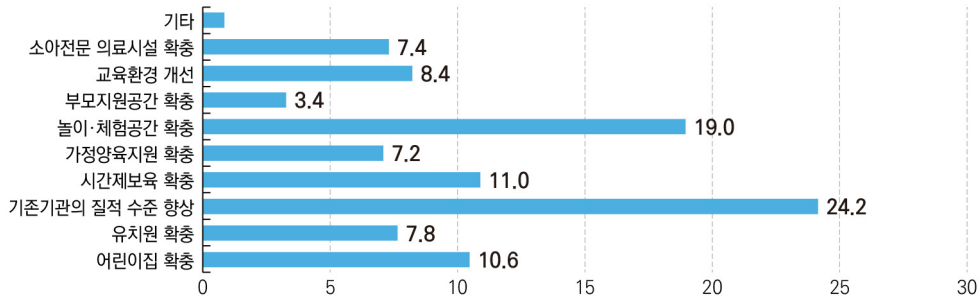
자료: 도농복합시 -김은설 외(2018). 도농복합지역 육아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국 - 이정원 외(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 도농복합시 영유아 양육 가정에서 1년 기간 동안 영유아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율을 보면 평균 40%가 영화나 체험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함.  
 ▶ 그 이유로 이용 가능한 행사나 시설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34.8%로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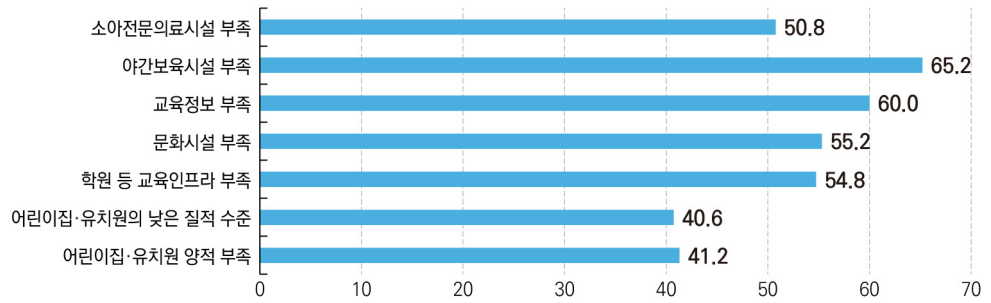
[그림 2] 도농복합시 영유아 가구의 문화프로그램 향유 현황

- 부모들은 도농복합지역(농어촌) 양육환경 개선에 우선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다음으로는 놀이시설이나 체험 공간의 확충을 들었다.



[그림 3] 도농복합시 영유아 가구의 양육환경 개선 요구

- 도농복합시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영유아 부모들은 야간 등 장시간 이용 가능한 돌봄시설 부족(65.2%)을 가장 많이 꼽았고, 자녀놀이나 학습 관련 정보의 부족(60.0%), 문화시설의 부족(55.2%), 학원 등 교육인프라 부족(54.8%), 소아전문 의료시설 부족(50.8%) 등을 지적함.



[그림 4] 도농복합시 영유아 부모의 양육 환경 문제점 인식

### Ⅲ. 도농복합시 등 농어촌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

도농복합시 등 농어촌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교육·보육 시설의 서비스 개선 및 확충, 부모 양육지원 개선을 위한 육아카페 및 공공도서관 역할 강화, 육아인프라로서 의료 환경 개선을 제안함.

- 교육·보육 시설 개선을 통한 부모 만족도 제고
  - ▶ 장시간 보육 이용 시설 확충: 1) 다수의 대도시 통근 맞벌이, 유동적 근로시간의 농어업인 가정 등 상대적으로 장시간 보육 수요가 높으므로 이에 대응한 서비스 확충 필요. 2) 지자체 직영 장시간 보육센터 설치, 또는 교통수단 제공을 통한 거점형 기존 시설 활용 등 개선 방안 필요
  - ▶ 농어촌 유치원 환경 개선을 위해 공립병설유치원 통폐합과 단설유치원의 확충: 1) 유아수 부족으로 운영이 곤란한 공립병설유치원 실태파악 및 통폐합 실시, 2) 단설유치원의 신설 및 증설 확대. 유치원 전용 통학차량 우선 제공
  - ▶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우수교사 유치 방안 강구: 1) 일정 기간(예, 5년) 농어촌 근무 교사에 대한 학자금 대출 등 경제적 부담 감면, 2) 농어촌 거주 주거비 지원, 3) 교통편의성 제공을 위한 차량 구입비용 지원, 4) 농어촌 근무 교사수당 점진적 상향조정(예시, 현행 11만원→ 최대 20만원)
- 부모 양육 지원 개선
  - ▶ 부모-자녀 공동 활동 공간 ‘육아카페’ 설치: 부모와 함께 참여할 체험, 놀이시설 부족, 육아 및 교육 정보 부족 등 요구에 부응할 지역사회내 시설 확충. 농어촌형 키즈카페 및 부모교육센터 역할 동시 가능
  - ▶ 영유아 문화센터로서 지역 도서관 역할 활성화: 지역 편중없이 가장 널리 설치된 공공시설인 도서관의 전문 인력과 재정을 활용하여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한 문화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 개설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지원 강화 필요
- 육아지원 인프라로서의 의료 환경 개선
  - ▶ 의료시설의 확충: 1) 공중보건의 배치 시 소아과/가정의학과 관련 전공의를 도농복합시에 우선 배치, 2) 농어촌 지역 내 소아과 병원 개원 시 재정 지원, 3) 지역내 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영유아 가정과의 긴급지원 핫라인 설치, 3) 영유아 양육 부모에 대한 정신 건강 프로그램 개설 등 지원 노력 실시

김은설 연구위원 eskim@kicce.re.kr